

제1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First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일시 2011년 10월 6일 (목) 9:30~17:00

장소 가톨릭대학교 인터내셔널 허브 (IH) 컨퍼런스룸 (3층)

주최 가톨릭대학교 성심국제캠퍼스

Date October 6 (Thursday) 9:30~17:00

Venue Conference Room 3rd Floor, International Hub (IH)

Hos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sim Int'l Campus)

목차

04 **초대의 말씀** / 박영식 신부 (가톨릭대학교 총장)

06 **축사** / 염수정 총대리 주교 (서울대교구)

10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의 배경**

12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16 **프로그램**

19 **Session 1**

 사회자 / 이창봉 교수 (가톨릭대)

 발표자 / 이덕선 회장 (Allied Technology Group)

 발표자 / 이덕효 신부 (워싱턴 대교구)
 “Bernard Wonkil Lee의 인본주의 정신”

 발표자 / Paul S. Coakley 대주교 (오클라호마 대교구)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톨릭계 대학”

51 **Session 2**

 사회자 / 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발표자 / 문용린 교수 (서울대, 前 교육부 장관)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가족공동체)”

 토론자 / 하병학 교수 (가톨릭대)

69 **Session 3** **인간학연구소 세미나**

 개회사 / 박일영 교수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장)

 사회자 / 박승찬 교수 (가톨릭대)

 발표자 / 강완숙 박사 (서울대)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공동체”

 발표자 / 이종진 신부 (서강대)
 “가톨릭 인본주의와 대학의 역할”

 토론자 / 최혜영 수녀 (가톨릭대), 김세서리아 박사 (성균관대),
 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김명수 팀장 (가톨릭대, 전략기획팀),
 임현석 (정보시스템공학)

117 **Session 4** **학생토론**

119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Contents

04 **Message from the President** / Rev. Yeongsik Pahk (President, CUK)

06 **Congratulatory Address** / Auxiliary Bishop, Vicar General Andrew S. Yeom
(Archdiocese of Seoul)

10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12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16 **Program**

19 **Session 1**

 Moderator / Prof. Changbong Lee (CUK)

 Presenter / Chairman, Matthew Duksun Lee (Allied Technology Group)

 Presenter / Rev. Paul Dukhyo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Catholic Humanism of Bernard Wonkil Lee”

 Presenter / Archbishop, Paul S. Coakley (Archdiocese of Oklahoma)
 “Catholic Humanism and the Catholic Universities”

51 **Session 2**

 Moderator / Prof. Syngwan Shin (CUK)

 Presenter / Prof. Yonglin Moon (Seoul National Univ.,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Discussant / Prof. Byoungnak Ha (CUK)

69 **Session 3** **Seminar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Opening Address / Prof. Ilyoung Park (CUK)

 Moderator / Prof. Seungchan Park (CUK)

 Presenter / Dr. Wansook Kang (Seoul National Univ.)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Community”

 Presenter / Rev. Jongjin Lee (Sogang Univ.)
 “Catholic Humanism and the Role of University”

 Discussant / Sr. Haeyoung Choi (CUK), Dr. Seseoria Kim (Sungkyunkwan Univ.),
 Prof. Syngwan Shin (CUK), Team Manager Myungsoo Kim (CUK),
 Hyunsuk Lim (Information System Engineering)

117 **Session 4** **Student Debate**

119 **Themes of the Forum** (Proposal)

초대의 말씀

Message from the President



저희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제1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을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Bernard Wonkil Lee 선생은 하느님께 대한 향한 신실한 믿음에 따라 성공적인 가톨릭 성가정을 이루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평생 가톨릭 정신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그분의 영성과 유훈을 기리고자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가톨릭 인본주의에 대한 사상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발표와 토론으로 유익하고 소중한 담론 시간이 될 것입니다. “Bernard Wonkil Lee 의 인본주의 사상,”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톨릭계 대학,”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라는 주제 발표가 있으며, 가톨릭 대학교 인간학연구소의 100번째 콜로키움 행사의 일환으로 “가족과 대학공동체에 대한 가톨릭 인본주의 접근” 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계 대학과 가톨릭 인본주의”라는 주제 하에 대학생들의 토론대회가 열립니다.

본 포럼은 자유로운 학술의 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가톨릭 인본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며, 아울러 가톨릭 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진리, 사랑, 봉사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성 회복과 나아가서는 보편적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영성·인성·지성을 고루 갖춘 대학인을 양성하는 데 초석이 될 포럼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 신부

박영식

Welcome to the First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the theme of which is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Mr. Bernard Wonkil Lee strived to establish a holy Catholic family in the faith of God. He was a respectable man who practiced the Catholic spirit throughout his life with a proactive way of thinking, trustfulness, and respect for people. Now Catholic University provides a forum for sharing thoughts and experiences relating to Catholic humanism by inviting outstanding personalities from home and abroad to pay a tribute to the spirituality of Bernard Wonkil Lee.

We hope that the series of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ill be valuable and instructive. The program includes presentations on "The Humanistic Spirit of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and Catholic Universities," and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It incorporates a special seminar which is linked to the 100th colloquium ceremony for the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The Catholic Humanist Approach to Family and University Communities." There will also be a debate contest for students on the theme of "Catholic Universities and Catholic Humanism."

The focus of the forum is to nurture college students and to equip them with spiritual power, personality, and intellect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It is our hope that this will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help to bond members of communities. In turn this will help to uphold the founding principles of our university and eventually realize Catholic humanism in society. Your participation in this significant forum is deeply appreciated. Thank you.

October, 2011
Fr. Johan Yeongsik Pakh, S.S.D.
Presiden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ohan Yeongsik Pakh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찬미 예수님!

먼저 가톨릭대학교에서 “제1회 버나드 원길 리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강연하기 위하여 멀리 미국 오콜라호마에서 오신 Coakley 대주교님과 그 외 다른 발표자들과 토론자,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는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 만남에서 공동체까지”입니다. 본 주제와 관련해서 이원길 선생님과 가족의 삶을 “워싱턴 대교구”에서 발행된 가톨릭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길 선생님은 가톨릭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원길 선생님과 가족은 황해도외의 어촌과 서울 인근에 살면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평범한 마을을 가톨릭 공동체로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여러 성당들을 건축하여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함께 사는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톨릭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전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원길 선생님과 가족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기 전, 북한에서는 가톨릭 신앙으로 인해서 공산당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또한 이원길 선생님은 남을 위한 사랑, 봉사, 희생, 베품의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가난하고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서 고향 동네의 문맹을 퇴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갯벌을 천수답으로 개간하여 수백 가정의 주민들에게 농토를 제공하고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원길 선생님의 남을 위한 사랑과 베품의 삶은 그 가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본 포럼이 시작되게 된 배경도, 부친인 이원길 선생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이덕선·이덕형 형제가 본 대학에 기부한 발전기금에 기초하여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 선생님의 가톨릭 신앙에 대한 소망은 자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의 가족은 여러 세대를 걸쳐 대대로 가톨릭 신앙을 지켜왔으며, 그 결실은 미국 내 한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아들 이덕호 신부의 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덕호 바오로 신부는 현재 워싱턴 대교구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길 선생님이

Praise the Lor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On behalf of the universi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all of the presenters, discussants, and guests who have made this event possible. In particular, thanks are due to Archbishop Coakley and Father Paul D. Lee, both of whom have traveled from the United States to participate in this forum.

The theme of the forum is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I first came to understand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nd his family through a feature in the "Catholic Standard" newspaper issued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on June 6th, 1996. From this starting point I was able to learn much about the life of a committed Catholic human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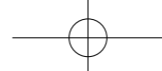
First, Mr. Bernard Wonkil Lee continuously practiced the Catholic faith throughout his life.

When Mr. Bernard Wonkil Lee lived with his family in a rural town on the outskirts of Seoul, they contributed greatly to the conversion of the local population to Catholicism. This involved the construction of new churches dedicated to the Lord, and the propagation of Catholicism so that many fellow townfolk were able to live according to Catholic faith and beliefs. When he and his family lived in North Korea before coming south in search of freedom, they suffered hardships such as death threats from communists due to their Catholic faith.

Second, Mr. Bernard Wonkil Lee lived a life of love, service, sacrifice, and dispensation to others.

Many fellow townfolk were desperately poor and had not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letters. He taught them how to read and write, and eradicated illiteracy in the village. He created farmland for hundreds of people by converting tidal mud flats into rice paddies. He provided food and clothes to the hungry. Moreover, Mr. Lee passed down the life of love and dispensation to his descendants. I know that this forum originates from the donation of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Washington D.C.-based Korean-Americans who donated \$1.5 million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forum in September 2009. The Lee brothers do not hesitate to name Bernard Wonkil Lee, their father, as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their lives.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작고한 후에는 남아 있는 가족들이 선생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포토맥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수녀원을 지어서 수녀회에 기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원길 선생님과 그 가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가톨릭 성가정을 이루고, 믿음, 사랑, 봉사, 배움, 소망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평생 동안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원길 선생님과 가족들은 이번 포럼의 주제인 "가톨릭 인본주의"를 삶을 통해 몸소 실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톨릭 인본주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0년(2011-2020) 동안의 포럼의 대주제의 방향도 이미 정하고, 내년 이후 개최되는 포럼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 인본주의에 대하여 연구하는 본 포럼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 희생이 부족하여 메말라 있는 우리 사회에 가톨릭 인본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가톨릭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진리, 사랑, 봉사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시작하는 제1회 국제포럼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으로 믿으며, 본 포럼을 통해서 가톨릭 인본주의에 대한 사상과 경험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참가한 모든 분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회 버나드 원길 리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 포럼(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서울대학교 총대리 염수정 주교

염수정

Third, Mr. Lee's commitment to the Catholic faith has continued through his offspring, and his family has maintained their Catholicism for several generations. Notably, his fourth son, Father Paul D. Lee was ordained as the first Korean Catholic priest in the United States, and is now fulfilling his mission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Furthermore, in memory of Bernard Wonkil Lee, his family built a convent for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 at a beautiful location in Potomac, Maryland.

In this way, following the teachings of Jesus, Mr. Lee lived according to the spirit of Catholic humanism, as his family continue to do today. He remained sincere in his belief in God, and continued to cherish the life of belief, love, service, and dispensation even when poor and faced with a rugged life. Therefore the life of Mr. Lee and his family is itself a life of "Catholic Humanism", the theme of the forum.

This forum will feature a series of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from distinguished scholars from both home and abroad. Preparations for next year's forum are already underway,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forum from 2011 to 2020 has already been outlined. As such, this forum for the study of Catholic humanism will greatly contribute to putting down the roots of Catholic humanism in a cold-hearted society with its lack of care, love, and sacrifice to others. Also it will help in realizing truth, love, and service, which are the educational principles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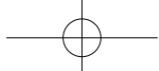
I believe that God will be present with us throughout this forum. And I hope that all participants will share their ideas and experiences of Catholic humanism, and find high favor with God.

Once again, congratulation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on the First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Thank you.

October 6, 2011
Auxiliary Bishop, Vicar General Andrew Soojung Yeom
Archdiocese of Seoul

Andrew Yeom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의 배경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포럼의 배경

2009년 9월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교포 기업가 이덕선·이덕형 형제는 본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미화 150만 불을 기부하였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이들 형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는 하느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따라 가톨릭 성가정을 이루어 간 분으로 회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마음깊이 간직한 채 삶을 매우 낙천적으로 이끌어간 존경할 인품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은 우리 가톨릭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사랑, 봉사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것은 진리와 정직, 사랑과 남에 대한 깊은 배려로 인생을 매우 뜻 깊게 살았던 고인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대학교는 이덕선·이덕형 형제의 기부금을 받아 여기서 발생하는 과실을 재원으로 Bernard Wonkil Lee Fund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 펀드에 기초하여 운영할 포럼을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이란 이름을 부여 하고, 그의 정신에 따라 가톨릭 인본주의 사상을 고취하고자 한다.

동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톨릭 정신에 따라서 영성·인성·지성을 고루 갖춘 대학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톨릭 인본주의의 실현에 기여함과 아울러 가톨릭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그에 따라 이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 및 학술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행사로 운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개최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의 주제 방향으로는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와 책임" 등으로 설정하여 이런 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가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을 깊이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가톨릭 인본주의 및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The background of the forum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Washington D.C.-based Korean-Americans, donated \$1.5 million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its development in September 2009. The Lee brothers, as successful businessmen, do not hesitate to name Bernard Wonkil Lee, their father, as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their lives. They recall their father was a man who strived to establish a holy Catholic family in the faith of God. Bernard Wonkil Lee was a respectable man who led an optimistic life with a proactive way of thinking, faith in God, trustfulness, and respect for people.

Catholic humanism upheld by Bernard Wonkil Lee is consistent with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Catholic University: honesty, love, and service. In other words, the spirits of our university are what he believed in and the way he lived. In this regar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cided to form Bernard Wonkil Lee Fund based on the donation made by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and its consequential profits. And the forum to be hosted by the support of this Fund shall be named the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hereafter referred as the BWL Forum). The forum shall become a venue for instilling the philosophy of Catholic humanism.

The purpose of the forum is to nurture college students equipped with spiritual power, personality, and intellect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It is our hope that this will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bond members of a community. In turn this will help to uphold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university and eventually realize Catholic humanism in society. This forum shall be an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inviting renowned speakers from home and abroad.

The BWL Forum will be held every year under the general theme of "Mankind and Community." For the first 10 years, the directions of the discussions sha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As the forum proceeds, the discussions will be intensified and the forums will serve as a venue to look into the philosophy of Bernard Wonkil Lee an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atholic humanism, mankind and community.



프로그램

2011년 10월 6일 (목)

Time	Program	Detail
09:30-10:00	등록	컨퍼런스룸 (3층), International Hub (IH)
제1 세션		
10:00-11:35	사회	이창봉 교수 (가톨릭대)
	환영사	박영식 신부 (가톨릭대 총장)
	축사	염수정 총대리주교 (서울대교구)
	발표 Bernard Wonkil Lee 소개	이덕선 회장 (Allied Technology Group)
	Bernard Wonkil Lee의 인본주의 정신	이덕호 신부 (워싱턴 대교구)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톨릭계 대학	Paul S. Coakley 대주교 (오콜라호마 대교구)
11:35-11:45	휴식	
제2 세션		
11:45-12:40	사회	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발표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가족공동체)	문용린 교수 (서울대, 前 교육부 장관)
	토론	하병학 교수 (가톨릭대)
12:40-14:00	점심	
제3 세션 인간학연구소 세미나		
14:00-15:30	사회	박승찬 교수 (가톨릭대)
	개회사	박일영 교수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장)
	발표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공동체	강완숙 박사 (서울대)
	가톨릭 인본주의와 대학의 역할	이종진 신부 (서강대)
	토론	최혜영 수녀 (가톨릭대), 김세서리아 박사 (성균관대) 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김명수 팀장 (가톨릭대, 전략기획팀), 임현석 (정보시스템공학)
15:30-16:00	인간학연구소 100회 콜로키움 행사	
제4 세션 학생토론		
16:00-17:00	사회	구본만 신부 (가톨릭대)
	토론 소주제	가톨릭 인본주의와 대학생활 문화 가톨릭계 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성찰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을 구현한 가톨릭 캠퍼스의 모습

Program

October 6 (Thursday), 2011

Time	Program	Detail
09:30-10:00	Registration	Conference Room, International Hub 3F
1st Session		
10:00-11:35	Moderator	Prof. Changbong Lee (CUK)
	Welcome Address	Rev. Yeongsik Pahk (President of CUK)
	Congratulatory Address	Auxiliary Bishop, Vicar General Andrew S. Yeom (Archdiocese of Seoul)
	Presenters Introduction to Bernard Wonkil Lee	Chairman, Matthew Duksun Lee (Allied Technology Group)
		Rev. Paul Dukhyo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Archbishop, Paul S. Coakley (Archdiocese of Oklahoma)
11:35-11:45	Coffee Break	
2nd Session		
11:45-12:40	Moderator	Prof. Synghwan Shin (CUK)
	Presenter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Prof. Yonglin Moon (Seoul National Univ.,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Prof. Byounggak Ha (CUK)
12:40-14:00	Luncheon	
3rd Session Seminar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14:00-15:30	Moderator	Prof. Seungchan Park (CUK)
	Opening Address	Prof. Ilyoung Park (CUK)
	Presenters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Community	Dr. Wansook Kang (Seoul National Univ.)
		Rev. Jongjin Lee (Sogang Univ.)
	Discussant	Sr. Haeyoung Choi (CUK), Dr. Seseoria Kim (Sungkyunkwan Univ.), Prof. Synghwan Shin (CUK)
		Team Manager Myoungsoo Kim (CUK), Hyunsuk Lim (Information System Engineering)
15:30-16:00	The 100th Colloquium Ceremony for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4th Session Student Debate		
16:00-17:00	Moderator	Rev. Bonman Koo (CUK)
	Sub-themes for Debate	Catholic Humanism and University Life Culture
		Curriculum of Catholic Universities
		Campus Spatial Structure and Facilities to Realize the Catholic Humanism Spirit



Session 1

Bernard Wonkil Lee 소개 | 이덕선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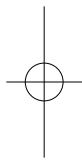
Bernard Wonkil Lee의 인본주의 정신 | 이덕효 신부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톨릭계 대학 | **Paul S. Coakley** 대주교

Introduction to Bernard Wonkil Lee | **Chairman, Matthew Duksun Lee**

Catholic Humanism of Bernard Wonkil Lee | **Rev. Paul Dukhyo Lee**

Catholic Humanism and the Catholic Universities | **Archbishop, Paul S. Coak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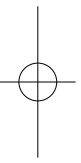




Session 2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가족공동체) | 문용린 교수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 Prof. Yonglin Moon





Session 3

인간학연구소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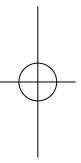
Seminar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공동체 | **강완숙 박사**

가톨릭 인본주의와 대학의 역할 | **이종진 신부**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Community | **Dr. Wansook Kang**

Catholic Humanism and the Role of University | **Rev. Jongjin Lee**





Session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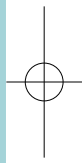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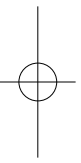
학생토론
Student Debate

가톨릭 인본주의와 대학생활 문화
가톨릭계 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성찰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을 구현한 가톨릭 캠퍼스의 모습

Catholic Humanism and University Life Culture
Curriculum of Catholic Universities
Campus Spatial Structure and Facilities to Realize the Catholic Humanism Spirit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Themes of the Forum (Proposal)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Themes of the Forum (Proposal)

1) 제1~9차 BWL Forum

차수	포럼방향	주제범주	주제(어)	관련 주제어	열린 주제
제1차	공동체의 형성(원칙)	가정 공동체(I)	가톨릭 인본주의/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포럼 취지, 인본주의/ 만남, 대화, 관계, 공동체	포럼이 개최되는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선정
제2차		사회 공동체(II)	배려와 정의	배려, 정의, 형평, 진실성	
제3차		자연 공동체(III)	생명: 존재의 시작	생명, 창조	
제4차	공동체의 발전(현재)	가정 공동체(II)	결혼과 출산	사랑(인격적 일치), 결혼, 출산, 불신, 이혼	
제5차		사회 공동체(II)	참여와 나눔	참여, 나눔, 공동선, 지구촌, 열린 공동체, 기아, 양극화	
제6차		자연 공동체(II)	존재와 성장	기후, 물, 자원, 고갈, 오염, 재해, 변화	
제7차	공동체와 책임(미래)	가정 공동체(III)	신뢰와 용서	용서, 화해, 존중, 신뢰, 인격, 헌신	
제8차		사회 공동체(III)	자유와 책임	자유·의지, 의무, (공동)책임, 책무	
제9차		자연 공동체(III)	보존과 미래	보존, 평화, 책임 있는 공동체	

-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갖는 BWL Forum의 첫 번째 10년의 포럼방향은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공동체와 책임'이다.
- '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체의 시작 혹은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정(제1차 포럼), 사회(제2차 포럼), 자연(제3차 포럼)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며,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포럼이다.
- '공동체의 발전'은 제4차~제6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현실 상황과 문제점, 현실 속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 '공동체와 책임'은 제7차~제9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 포럼에서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노력과 책임 등을 제시될 것이다.
- 관련 주제어는 주제(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주제들로서, 주제(어)가 제시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하였다.

3. The Themes of the First 10-year span BWL Forum (2011~2020) (Proposal)

- ◆ General Theme : Human Being and Community
- ◆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and Natural Communities

1) The 1st~9th BWL Forum

Year	Direction of Forum	Theme category	Topics	Related Keywords	Open Topics
1	Formation of Community (Principles)	Family(I)	Catholic humanism/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a community	Purpose of the forum, humanism, meeting someone, dialogue, relationship and community	One of the pending international issues raised during the year of the forum
2		Social Communities(I)	Being considerate toward others and justice	being considerate toward others, justice, fairness and truthfulness	
3		Natural Communities(I)	life: beginning of beings	life, creation	
4	Development of Community (Present)	Family(II)	Marriage and procreation	love (humanistic unity), marriage, procreation, distrust, and divorce	
5		Social Communities(II)	Participation and sharing	participation, sharing, communalgood, global community, open community, starvation and polarization	
6		Natural Communities(II)	existence and growth	climate, water, natural resources, exhaustion, pollution, natural disasters, and changes	
7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uture)	Family(III)	trust and forgiveness	forgiveness, reconciliation, respect, trust, personality, devotion	
8		Social Communities(III)	freedom and responsibility	free will, du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9		Natural Communities(III)	Conservation and future	Conservation, peace, responsible community	

- The BWL Forum will take place under the general theme of "Human being and Community" and the directions of the forum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ten years.
- The direc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forums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which will deal with the beginning or forming of a community. We will discuss how communities such as family (first year), social communities (second year), and natural communities (third year) are formed and what is needed to form a community.
- The direction for the fourth, fifth, and sixth forums will be "Development of Community." We will look into examples of today's family, society, and nature, and discuss the pending issues and problems they face. We will also examine how these communities develop in reality.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제1차 BWL Forum

- 제1차 BWL Forum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막 구성은 1차 포럼 이후 10차 포럼 때도 활용한다.

① 제1막

- 주제 : 가톨릭 인본주의
- 이덕효 신부, Jenkins 총장의 주제 강연
- 발표주제 1 : Bernard Lee의 인본주의 정신(이덕효 신부)
- 발표주제 2 : 가톨릭 휴머니즘과 가톨릭 대학(Jenkins 총장)

② 제2막

- 주제 :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 제1차 포럼의 주제인 '만남에서 공동체까지'에 대한 주제 강연

2) 제10차 BWL Forum

- 10차 포럼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일제 포럼의 경우, 오전 시간은 1막, 오후 시간은 2막이 될 수 있다.
- 제1막은 9차까지의 '제1차 10년 주기 포럼'을 총정리 하는 시간이다.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의 대주제를 개관해 주는 시간이다.

(1) 제1막

- 주제 : 지구 공동체
- 관련 주제어 : 화해와 평화
- 이 부분의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주제는 '지구 공동체'이다. 주제에서 암시하는 대로, 10차 포럼에서는 9년간 살펴보았던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화해와 평화'는 하나의 가능한 주제어이다. 화해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이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 계층에서 서로 다른 신념, 가치, 이상, 종교, 이데올로기 등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등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화해는 이전 포럼에서 살펴본 주제(어)들과도 연관된다. 진실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에 '참여' 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향해 '자유'롭지만 '책임'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것을 '보존'하고 가진 것을 '나눔' 때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2막

-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서막 역할을 한다.
- 이 시간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을 홍보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주제(어)는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이 확정된 후 정하도록 한다.

Themes of the Forum (Proposal)

(1) The 1st BWL Forum

- The first BWL Forum will consist of two sessions. The tenth forum will also follow the two-session system.

① The First Session

- Theme : Catholic Humanism
- Speakers : Rev. Paul D. Lee, and Archbishop Paul S. Coakley
- Topic 1 : Bernard Lee's Humanism Spirit (Rev. Paul D. Lee)
- Topic 2 : Catholic Humanism and Catholic Universities (Archbishop Paul S. Coakley)

② The 2nd Session

- Theme :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a community
- Keynote speech on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the theme of the 1st forum.

2) The Tenth BWL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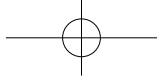
- The tenth forum will also consist of two sessions. If organized as a whole-day program, the first session will be held in the morning and the second session in the afternoon.
- The first session of the tenth forum will be devoted to summarizing the previous nine forum themes that were covered under the first 10-year cycle forum system. The second session will be devoted to giv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themes covered in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system.

(1) The First Session

- General theme: The Global Community
- Related Keywords: Reconciliation and Peace
- The general theme of the 10th BWL Forum will be "Global Community." As implied in the theme, the 10th forum aims to provide us with an integrative view of all the themes – "family," "society" and "nature" - discussed in the previous 9 years.
- "Reconciliation and Peace" is one possible keyword for the forum. Reconciliation is a practical path to peace. Only through genuine efforts of reconciliation amongst people of different social statuses, different beliefs, different values, different ideals, different religions, and different ideologies,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and amongst nations can we achieve real peace in this world.
- Furthermore, "reconciliation" is related to the themes of the previous forums. In order to achieve genuine reconciliation, we must first "meet" and "participate in" dialogues. We must approach others with "thoughtfulness," "respect," and "trust." We must make efforts to "forgive" one another. We also have to make efforts to create a better "future" together in a free, but responsible, atmosphere by preserving what we are and sharing what we have.

(2) The Second Session

- The second session will serve as a prelude to the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session will also be devoted to articulating the themes of the upcoming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topics will be chosen when the schedule for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is decided upon.



제1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First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발행인 가톨릭대학교 국제교류처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운영사무국

발행일 2011년 10월 6일

운영위원장 전진석 교수 (정경학부 행정학전공)

운영위원 구본만 신부 (인간학교육원)

이창봉 교수 (영미언어문화학부 영어영미문화전공)

신승환 교수 (인문학부 철학전공)

임학순 교수 (디지털미디어학부 문화콘텐츠전공)

이창우 교수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장세훈 팀장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연제전 팀장 (정보통신원 정보통신지원팀)

진행 박슬기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운영사무국)

디자인 양승주

제작 한기획

문의 가톨릭대학교 국제교류처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운영사무국
Tel. +82_2_2164_6578, +82_2_2164_4116